

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「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」 구축 진행상황

- 한국은행은 「역외 원화결제시스템」(가칭)의 정식 명칭을 「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*」으로 결정하고 올해 9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구축을 진행 중
 - * 약칭: 한은국제망, 영문: Bank of Korea Won International Wire Network(BOK-Wire^{Int})
 - 시범운영 시에는 4개 은행(국민, 우리, 하나, 신한)이 참가할 예정이며 현재 참가기관들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 중
 - 또한, 한국은행 「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 규정」 등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8월중 마무리 할 예정
- 한국은행은 「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」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결제인프라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「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」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에 24시간 (오전 09시 ~ 익일 오전 09시) 운영할 예정
 -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차에 상관없이 각국 금융시장 업무 시간(business hour)에 원화결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화자금 활용 및 관리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

문의처 : 금융결제국 결제운영부 지급결제혁신팀 팀장 최승조, 과장 이창민

Tel : (02) 750-6634, 6649

공보관 : Tel : (02) 759-4199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